
 인천광역시		<b>보 도 자 료</b>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배포일자	2022년 9월 23일(금) 총 4매	
담당 부서	시정혁신 담당관	담 당 자	• 시정혁신팀장 주우익 ☎440-1641 • 담당자 박진령 ☎440-164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청 앞 미래로 교통정온화 사업, 문제 해결방안 모색

- 23일, 「인천시 시정혁신 준비단」 제10차 전체회의 개최 -  
 - 교통정체, 조업주차, 자전거도로 등 문제점 집중 논의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3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시정 혁신 준비단 제10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미래로 교통정온화 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사업이란, 보행자 안전 향상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정온화 시설 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2019년 2월에 제정한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청 정문 앞 길이 450m, 폭 50m 규모의 미래로 교통 정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 토목공사는 지난해 10월에 시작돼 올해 8월에 완료됐고, 2단계 경관개선사업은 오는 10월말 완료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37억 원이다. 이번 공사의 골자는 보도를 기존 8m에서 15~20m로 확장하고, 차도는 반대로 기존 6차로에서 2~4차로로 축소시켜 보행자 중심의 도로

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미래로 교통정온화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돼 왔다.

첫 번째, 차도가 기존 왕복 6차로에서 2차로로 축소됨에 따라 차량 주행속도가 감소되고 교통정체가 심해진다는 논란이다. 특히, 공사기간 중 출퇴근 시간과 공휴일 미래로 주변 차량 교통정체가 집중되면서 이로 인해 인근 지역까지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기도 했다.

두 번째, 미래로 주변 소상공인들의 조업주차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인근 상인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된 점이다. 공사 착공 전 교통사고 및 불법 주정차 문제가 예상돼 조업주차공간이 반영되지 않아 주변 상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자전거 이용자 수 대비 자전거도로 폭이 과다하게 설치됐다는 지적이다. 착공 전 도로교통공단의 자문을 받아 폭 3m를 반영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늘어난 자전거도로 폭 만큼 상대적으로 차도와 보도 폭이 지나치게 축소된 것은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소관부서인 인천시 도로과는 토목공사 중 불가피하게 일부 구간에서 교통정체 등이 발생하기도 했으나, 최근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현황을 조사한 결과 극심한 정체는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시민들과 주변 상인 등 도로 주변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유권홍 인천시 시정혁신준비단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기존 차로 수는 축소하고 반대로 보도 폭은 확장하며, 회전교차로 및 자전거 도로 신설, 야간경관 및 녹지 조성 등을 통해 그동안 차량 중심으로 운영되던 도로를 친환경, 보행자 친화적인 도로로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적극 찬성” 한다면 “공사추진으로 인해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시민들과 주변 상인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 바, 소관부서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실현 가능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 시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 (참고) 미래도 교통정온화 사업 조감도 등



참고

미래도 교통정온화 사업 조감도 등

